

◆ 17년 3월 고2 26~2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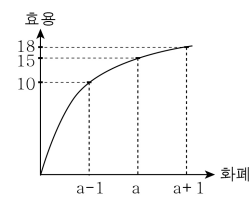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㉔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2,000 \times 0.4 = 800$)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500 \times 0.6 = -300$)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㉔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 에서 $a+1$ 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8의 차이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 에서 $a-1$ 로 1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0의 차이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일 ㉑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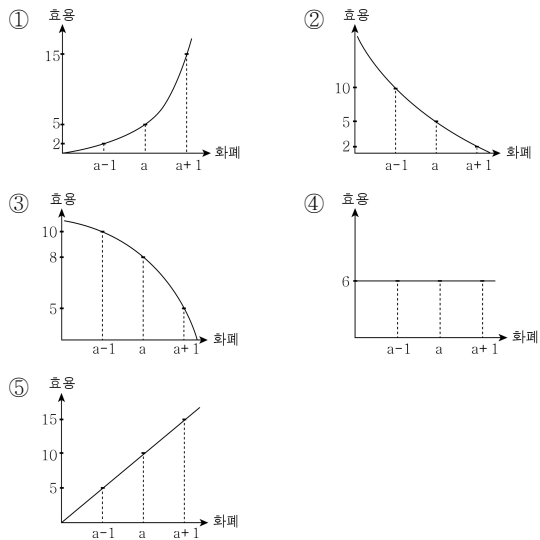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한계효용: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있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 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26. 밑글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투자 상품의 유형 ②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 ③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④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

27. ㉑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귀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하십니까? (단위: 만 원)				
	투자 비용	투자 수익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A 상품	50	450	20%	50
B 상품	50	200	40%	50

	A 상품	B 상품	현금 보유
갑		✓	
을	✓		
병			✓

- ① ‘갑’은 ‘병’에 비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겠군.
- ②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군.
- ③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군.
- ④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 ⑤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 13 사관학교 1차 34~36번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려는 어떤 사람이 신발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의 날씨에 관계없이 28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코트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이 추울 경우 50만 원, 따뜻할 경우 1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투자가 더 합리적일까? 이럴 경우 우리는 이익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 즉 ‘기대 이익’의 값을 통해 투자 회사를 결정해 볼 수 있다. 그 해 겨울의 날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1/2의 확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회사

[A]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이익은 옆의 표와 같다. 코트 회사가 기대 이익이 더 크므로, 신발 회사보다는 코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회사 중 신발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는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날씨라는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단위 : 만 원)

구분	이익		기대 이익 (이익×확률)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신발 회사	28	28	$28 \times 1/2 + 28 \times 1/2 = 28$
코트 회사	50	10	$50 \times 1/2 + 10 \times 1/2 = 30$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르누이는 그가 고안한 게임을 통해 설명하였다. 베르누이는 동전을 던져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면 2달러(2^1 달러), 두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4달러(2^2 달러), 세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8달러(2^3 달러), n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2^n 달러를 상금으로 주는 게임을 생각했다. 즉 뒷면이 계속 나올수록 상금이 많아지고, 앞면이 나오는 순간 더 던질 기회가 없어지는 게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참가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을 산출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행 횟수가 무한대까지 가능하므로,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기대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돈 전부를 참가비로 내더라도 사람들은 게임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비가 단돈 50달러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 게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일종의 모순과도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 즉 ‘효용’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만약 위 게임의 참가비가 50달러라면, 최소한 이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섯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와 64달러(2^6)를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확률은 $(1/2)^6$ 인 1.56%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50달러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의 효용보다, 비록 확률은 낮아도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효용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와 ‘기대 효용’을 사용한다. 효용 함수는 불확실한 상황의 위험을 반영하여 효용의 크기를 변환한 것이다. 베르누이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레이머는 ‘ $\text{효용} = \sqrt{\text{장금}}$ ’이라는 효용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에 의하면 이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100달러의 효용을, 안전하게 있는 10달러의 효용과 같게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여 베르누이가 제안한 게임의 기대 효용을 구해 보자. 기대 효용은 효용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인데, 효용 함수가 ‘ $\text{효용} = \sqrt{\text{장금}}$ ’이므로 기대 효용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기대 효용} = \sqrt{2^1}(1/2) + \sqrt{2^2}(1/2)^2 + \sqrt{2^3}(1/2)^3 + \dots + \sqrt{2^n}(1/2)^n = \sqrt{2} + 1 = 2.413$$

또한 이렇게 계산된 기대 효용 2.413을 다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823달러(2.413^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금은 무한대라고 하지만, 기대 효용의 화폐 가치는 6달러도 채 못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아마도 50달러의 참가비를 내고서는 베르누이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기대 이익 외에 기대 효용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34.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확률이 기대 효용에 미치는 영향
 - 위험을 기피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 ② 불확실성과 기대 이익의 상관관계
 - 베르누이의 게임을 중심으로
- ③ 기대 이익에 따른 합리적 투자법
 - 효용 함수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④ 크레이머의 효용 함수가 갖는 의미
 - 기대 효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 ⑤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의사 결정
 -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을 중심으로

35.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각 관점이 갖는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36. [A]와 <보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효용 함수를 ‘ $\text{효용} = \sqrt{\text{이익}}$ ’이라고 할 때, [A]의 신발 회사나 코트 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효용		기대 효용 ($\text{효용} \times \text{확률}$)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신발 회사	$\sqrt{28}$	$\sqrt{28}$	5.29
코트 회사	$\sqrt{50}$	$\sqrt{10}$	5.12

- ① 기대 효용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신발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코트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겠군.
- ③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투자할 때에는 신중해야겠군.
- ④ 추운 겨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신발 회사의 기대 이익이 증가하지는 않겠군.
- 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기대 이익이 같아지므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그 이익이 같겠군.

◆ 17 수능 37~42번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0.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07 사관학교 1차 23~26번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학자들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정보 파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판매자만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매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 이 중고차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중고차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고차 시장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은 ‘복숭아(훌륭한 자동차)’이고 나머지 절반은 ‘레몬(결함이 있는 형편없는 차)’이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차가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알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자동차가 레몬일 확률과 복숭아일 확률이 50%임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자.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의 적정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 생각하고 판매자와 흥정을 하게 된다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레몬을 갖고 있는 판매자는 주저함 없이 이 자동차를 200만 원에 팔 것이다. 하지만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는 손해를 볼 수는 없으므로 팔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구매자는 판매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될 것이다.

-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시장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몬일 확률이 50%나 되는데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차를 4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려는 구매자는 없을 것이다.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복숭아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고, 가치가 거의 없는 레몬들만이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판매자들은 레몬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고, 결국 구매자들은 이전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형편없는 레몬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들은 이 시장을 떠날 것이고, 구매자들은 복숭아는 없고 레몬만을 팔고 있는 이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은 매매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라) 편중된 내부 정보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스펜서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늘리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컨대 중고차 시장에서 복숭아를 팔려고 하는 판매자라면 제대로 된 자동차 쇼룸을 구비해 놓고 구매자들이 자동차 내부를 확인해 보거나 시승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는 복숭아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고 구매자도 그 품질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년에 걸친 판매 이익은 쇼룸에 대한 투자도 보상해 줄 것이다.
- (마)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스펜서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보가 적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 ‘심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예컨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는 레몬을 복숭아로 속여 파는 판매자들을 사전에 ‘위험 부류’로 분류하거나, 레몬인지 복숭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 중고 자동차를 사기 전에 이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3.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과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나) : 정보가 편중된 시장의 상황 가정
- ③ (다)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기능의 상실
- ④ (라) :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성
- ⑤ (마) :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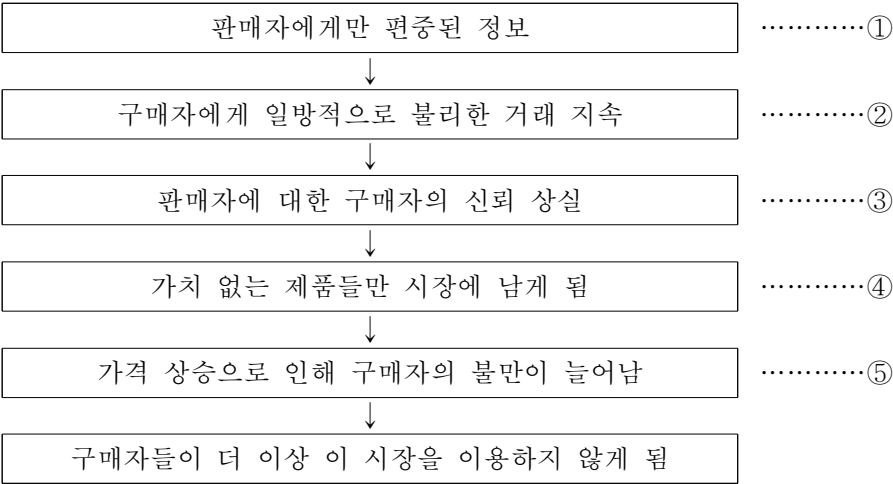
24.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 하면 아픈 A와 건강을 잘 유지해 온 B는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C라는 생명 보험 회사의 건강 보험 상품을 계약하려고 한다. A와 B에 대한 정보가 없는 C는 A와 B에게 나이가 몇인지, 담배를 피우는지, 병으로 입원한 적은 없는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C는 A와 B의 답변을 바탕으로 A와 B의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려고 하였다.

- ① C의 입장에서 볼 때, A는 ‘레몬’, B는 ‘복숭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C가 A와 B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손해 볼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 ③ C가 A와 B에게 질문을 한 것은 일종의 ‘심사’로, 이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④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 가입자들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⑤ 생명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신상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에 해당한다.

25. ㉠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6. ㉡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농산물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과 출하 시기, 생산자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 ② 백화점 정육 코너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고기가 최상품임을 알리기 위해 무료 시식 행사를 하였다.
- ③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뽑을 때 경력 확인을 위해 입사 지원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 ④ 예비신랑이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와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였다.
- ⑤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연봉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

◆ 08 MDEET 언어추론 29~31번

[29~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매커니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커진다.

A 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 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위면당하면, B 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 기업이 B 기업과는 차별화된 제 가격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 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분리 균형 상태와 혼합 균형 상태는 경제 주체의 전략, 시장의 규모, 정보 비대칭의 정도, 시장 참가자의 신호와 선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유지되거나 소멸한다. 이를테면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 혼합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9.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
- 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시장 균형의 형태
- ③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의 생성 과정
- ④ 정보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
-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손익 변화

30.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소비자 협회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비싸게 팔린다.
- 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 ㄹ. 낯선 곳에 가면 현지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상점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 ㅁ.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업무 능력이 낮은 지원자는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봐 지원하기를 꺼린다.

-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31. 위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기>의 시장이 도달할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어떤 상품 시장의 두 기업 '갑'과 '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기업은 이 표의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 기업도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기업이 신호 발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고가격을, 신호 자체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저가격을 책정한다. 표에는 두 기업의 선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순이익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각 셀의 두 수 중 처음 것은 갑, 두 번째 것은 을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경우에 갑은 5, 을은 10의 순이익을 얻는다.

		을의 전략	
		신호 발송	신호 자체
갑의 전략	신호 발송	(5, 10)	(6, 8)
	신호 자체	(7, 8)	(7, 7)

- ① 갑과 을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② 갑과 을 모두 신호를 자체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③ 갑은 신호를 발송하고 을은 신호를 자체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④ 갑은 신호를 자체하고 을은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⑤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